

인색업계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회자된 지 이미 오래이며 청년실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인색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색업계와 인색을 전공한 졸업자들 모두 구인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의 청년 실업률은 9.1%로 지난 1월의 8.8% 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01년 2월의 9.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실업률도 1월 3.7%에서 2월 3.9%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 2월 전체 취업자수는 2200만5천명으로 1월의 2193만6천명에 비해 2.4% 늘었다. 특히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0.2% 증가로 반전된 것을 기점으로 4개월(12월 0.2%, 1월 1.7%, 2월 2.4%) 연속 늘었다.

취업자수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됐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직장을 구했고 나머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월은 각종 학교의 졸업식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업률,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전통적으로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시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을 크게 염려하는 데는 이 문제가 간단한 정책과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향후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크

기업주 현장 적응능력 높이는 교육필요

졸업생 환경 개선하고 비전 제시해 줘야



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의 청년실업은 경기침체 외에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 관행의 변화와 고학력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 등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 전공 졸업생 취업현황

인쇄과를 개설하고 있는 4개 학교(부경대학교, 중부대학교, 신구대학, 인천전문대학) 2004년도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취업 경향도 위에서 언급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경대학교의 경우 화상정보공학부 졸업생 96명 중 6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현장에 진출하지 못한 졸업자 중에서 입대자 1명, 국내외 상급학교 진학자 12명과 국가고시 준비자 7명, 진학 준비자 1명 등 2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취업대상자는 75명이었다. 이중 87%인 65명이 취업했으며 65명의 취업자 중 60%인 39명은 전공분야인 인쇄업계로 진출했고 40%인 26명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공분야에 진출한 39명 중 30명은 생산 및 기획 분야로 진출했고

나머지 9명은 영업현장으로 갔다.

중부대학교의 경우 인쇄정보미디어과 졸업생 25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2명을 제외한 23명의 취업대상자 중 96%인 22명이 취업했다. 취업생 22명 모두 인쇄업계로 진출했으며 그중 19명은 생산 및 관련 기획분야에, 나머지 3명은 영업현장에 투입됐다.

신구대학의 경우 인쇄정보미디어과 137명의 졸업생 중 4명이 편입함에 따라 순수 취업대상자는 133명이었는데 이중 77%인 102명이 취업했다. 그 가운데 45%인 46명이 전공인 인쇄 및 관련 업계로 진출했고 55%인 56명은 비전공 분야에 취업했다. 전공관련 업계로 진출한 졸업생 중 36명은 생산 및 기획관련 업무를 맡게 됐으며 10명은 영업분야에서 일하게 됐다.

인천전문대학의 경우 화상인쇄과 77명의 졸업생 중에서 진학희망자 21명을 제외한 56명의 취업대상자 중 73%인 41명이 취업했다. 이중 76%인 31명이 전공분야로 진출했고 24%인 10

명이 비전공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공분야 취업자 31명 중 1명만이 영업현장으로 진출했으며 생산/제판 7명, 관리 1명, 기타 1명, 출력/편집 21명 등 나머지 30명은 인쇄업 각 분야에 취업했다.

전문인력 수급 절실

인쇄를 전공한 전문 인력과 인쇄업계의 구인구직에 관한 연결고리가 느슨하고 이로 인한 청년실업, 인력부족의 고통을 양쪽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은 업계와 학계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위의 4개 대학 인쇄관련학과 졸업생 335명 중 진학 및 편입 대상자와 군대 입영자 등을 제외한 올해 취업 대상자 28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중 80%인 230명이 취업했고 그 중 60%인 138명이 전공을 살려 인쇄관련 업종으로 취업했다. 이를 인쇄업계의 전문인력 수급동향의 측면에서 보면 인쇄를 전공한 287명의 취업대상 전문인력 중 48%인 138명만이 인쇄업계에 진출했

다는 뜻이다. 즉,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졸업생만이 전공을 살렸고 나머지는 대학 때 공부한 것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것은 올해 2월 졸업할 당시의 통계이다. 어느 계층보다 청년층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 안에 이 인력 중에서도 인취업계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 실질적인 전문인력의 수급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다른 학문을 전공한 졸업생들도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살리지 못한 채 취업만을 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취관련 학문은 어느 전공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취업하는 분야도 특화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인취업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학생들도 자신의 학문을 사회생활을 통해 펼쳐 보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취를 전공하고도 인취업계에 진출하지 않는 청년들과 인취업을 전공한 졸업생들을 쉽게 채용하지 못하는 업계 사이에는 이를 맺어주지 못하는 중요한 속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실 교육·청년층 흡수동력 필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강화된 채용시장의 중요 특징의 하나가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인취업을 전공한 인력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입은 그리 두텁지 않다. 심지어는 비전공자와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토로하는 경영자들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대학 교육이 실전보다는 학문적인 수준에 치우쳐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학에서 재학생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 | 2003. 2. | 2004. 1. | 2004. 2. | 전년동월대비 | | 전월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전체 | 822(3.7) | 854(3.7) | 900(3.9) | 78(0.2p) | 9.5 | 46(0.2p) | 5.4 |
| 15~29세 | 443(8.7) | 449(8.8) | 460(9.1) | 17(0.4p) | 3.8 | 11(0.3p) | 2.4 |
| · 15~19세 | 39(11.4) | 60(15.3) | 47(14.3) | 8(2.9p) | 20.5 | -13(-1.0p) | -21.7 |
| · 20~29세 | 404(8.5) | 389(8.3) | 413(8.7) | 9(0.2p) | 2.2 | 24(0.4p) | 6.2 |
| 30~39세 | 178(2.8) | 181(2.9) | 186(2.9) | 8(0.1p) | 4.5 | 5(0.0p) | 2.8 |
| 40~49세 | 119(2.0) | 131(2.1) | 152(2.4) | 33(0.4p) | 27.7 | 21(0.3p) | 16.0 |
| 50~59세 | 67(2.2) | 66(2.0) | 76(2.3) | 9(0.1p) | 13.4 | 10(0.3p) | 15.2 |
| 60세이상 | 15(0.8) | 26(1.3) | 26(1.3) | 11(0.5p) | 73.3 | 0(0.0p) | 0.0 |

()안은 실업률 및 증감률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을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중졸이하(34천명, 0.6p), 고졸(18천명, 0.1p), 대졸이상(26천명, 0.1p) 등 모든 교육정도에서 증가하였음.

*전월에 비해 대졸이상(86천명, 1.1p)은 증가하였으나, 고졸(-35천명, -0.3p)과 중졸이하(-5천명, -0.1p)에서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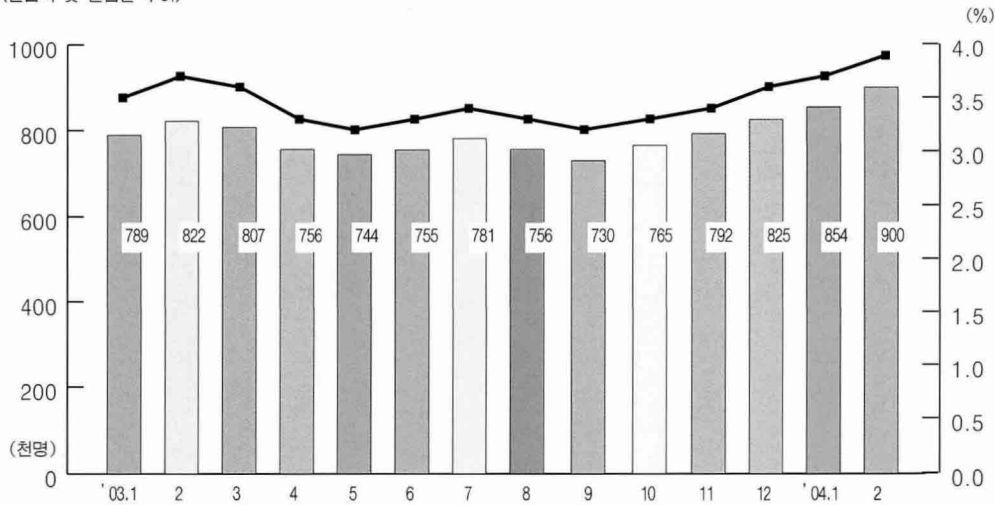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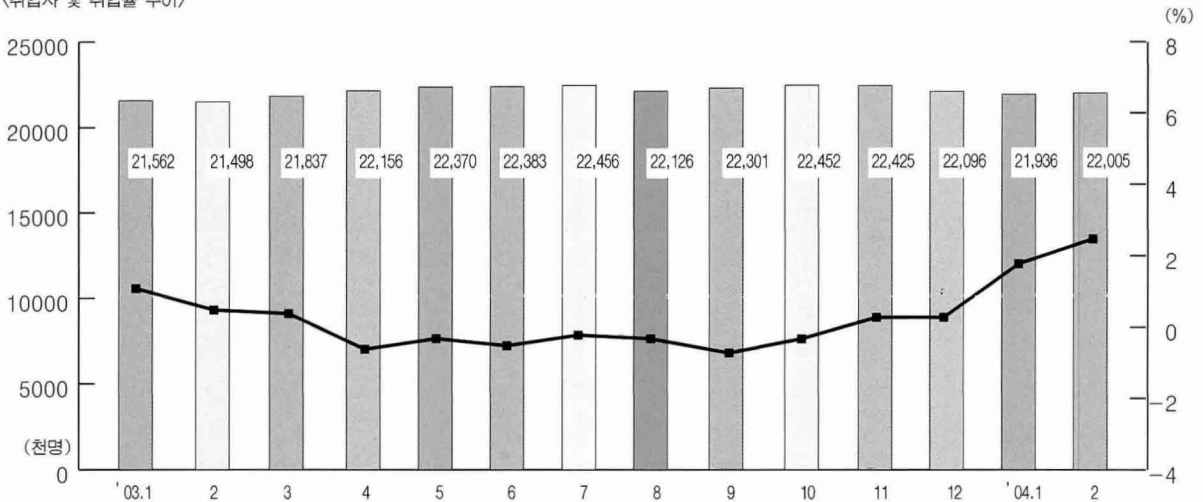
| | 2003. 2. | 2004. 1. | 2004. 2. | 전년동월대비 | | 전월대비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전체〉 | 822(3.7) | 854(3.7) | 900(3.9) | 78(0.2p) | 9.5 | 46(0.2p) | 5.4 |
| 중졸 이하 | 111(2.0) | 150(2.7) | 145(2.6) | 34(0.6p) | 30.6 | -5(-0.1p) | -3.3 |
| 고졸 | 441(4.4) | 494(4.8) | 459(4.5) | 18(0.1p) | 4.1 | -35(-0.3p) | -7.1 |
| 대졸 이상 | 270(4.0) | 210(3.0) | 296(4.1) | 26(0.1p) | 9.6 | 86(1.1p) | 41.0 |
| 〈남자〉 | 518(3.9) | 540(4.0) | 536(4.0) | 18(0.1p) | 3.5 | -4(0.0p) | -0.7 |
| 중졸 이하 | 75(2.8) | 93(3.5) | 94(3.5) | 19(0.7p) | 25.3 | 1(0.0p) | 1.1 |
| 고졸 | 284(4.7) | 309(5.0) | 288(4.7) | 4(0.0p) | 1.4 | -21(-0.3p) | -6.8 |
| 대졸 이상 | 158(3.5) | 138(3.0) | 154(3.3) | -4(-0.2p) | -2.5 | 16(0.3p) | 11.6 |
| 〈여자〉 | 304(3.4) | 315(3.4) | 364(3.9) | 60(0.5p) | 19.7 | 49(0.5p) | 15.6 |
| 중졸 이하 | 36(1.2) | 57(1.9) | 52(1.8) | 16(0.6p) | 44.4 | -5(-0.1p) | -8.8 |
| 고졸 | 156(4.1) | 185(4.6) | 171(4.3) | 15(0.2p) | 9.6 | -14(-0.3p) | -7.6 |
| 대졸 이상 | 112(4.9) | 72(3.1) | 142(5.8) | 30(0.9p) | 26.8 | 70(2.7p) | 97.2 |

()안은 실업률 및 증감률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취업자 및 취업률 추이〉



반면에 청년층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복지가 좋은 직장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은 직원들에게 대기업을 수준에 상응할 만큼의 좋은 환경을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인쇄업계뿐만이 아닌 모든 업종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겪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젊은층이 선호하는 업종은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나름의 매개물이 있다. 이에 인쇄업체들도 젊은 청년층을 흡수할만한 특화된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속되는 인쇄업 노동자들의 고령화 추세에 언젠가는 인쇄업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계·업계·장비보급사 공동노력해야 인쇄과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쇄업계로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계는 물론 업계와 장비보급사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간의 접촉기회를 넓힘으로써 졸업생들의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쇄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늘려야 한다.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가 진출할 영역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이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현대적 실습장비의 구비,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경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인쇄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학교 예산으로는 현대적 장비의 구비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지속적인 투자는 이뤄져야 한다.

인쇄업계가 기금을 조성, 학교에 실습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다. 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인쇄업체들이 방학이나 일정 기간을 할애, 인쇄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업계와 학생들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업계 발전이 경영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비보급사들의 지원사격도

필요하다. 인쇄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각종 장비에 대한 교육이나 시연회 등을 확대,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인쇄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보급하는 교육기자재 물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학계, 업계, 장비보급사들이 모여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인 지원방책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학계, 업계, 장비보급사들이 뜻을 모아 청년층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쇄업계의 밝은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 | 2003년 | | | 2004년 | | | | | |
|----|----------|----------|----------|----------|----------|-----------|-------|-----------|------|
| | 2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전년동월대비 | | 전월대비 | |
| | | | |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서울 | 250(5.0) | 234(4.7) | 235(4.7) | 238(4.7) | 257(5.1) | 7(0.1p) | 2.8 | 19(0.4p) | 8.0 |
| 부산 | 63(3.7) | 66(4.0) | 71(4.2) | 75(4.5) | 76(4.6) | 13(0.9p) | 20.6 | 1(0.1p) | 1.3 |
| 대구 | 51(4.4) | 49(4.1) | 54(4.5) | 55(4.6) | 59(4.9) | 8(0.5p) | 15.7 | 4(0.3p) | 7.3 |
| 인천 | 58(4.8) | 47(3.8) | 53(4.3) | 53(4.3) | 60(4.9) | 2(0.1p) | 3.4 | 7(0.6p) | 13.2 |
| 광주 | 27(4.4) | 26(4.2) | 27(4.3) | 29(4.6) | 29(4.6) | 2(0.2p) | 7.4 | 0(0.0p) | 0.0 |
| 대전 | 26(4.0) | 23(3.4) | 25(3.7) | 25(3.8) | 28(4.2) | 2(0.2p) | 7.7 | 3(0.4p) | 12.0 |
| 울산 | 14(2.9) | 16(3.2) | 17(3.4) | 18(3.7) | 21(4.3) | 7(1.4p) | 50.0 | 3(0.6p) | 16.7 |
| 경기 | 158(3.4) | 162(3.3) | 174(3.6) | 178(3.6) | 182(3.7) | 24(0.3p) | 15.2 | 4(0.1p) | 2.2 |
| 강원 | 15(2.5) | 13(1.9) | 15(2.3) | 14(2.2) | 15(2.4) | 0(-0.1p) | 0.0 | 1(0.2p) | 7.1 |
| 충북 | 24(3.8) | 18(2.6) | 18(2.7) | 20(3.1) | 20(3.0) | -4(-0.8p) | -16.7 | 0(-0.1p) | 0.0 |
| 충남 | 23(2.7) | 23(2.5) | 22(2.5) | 22(2.5) | 20(2.3) | -3(-0.4p) | -13.0 | -2(-0.2p) | -9.1 |
| 전북 | 24(3.0) | 21(2.4) | 21(2.6) | 21(2.6) | 24(3.0) | 0(0.0p) | 0.0 | 3(0.4p) | 14.3 |
| 전남 | 25(2.6) | 18(1.8) | 21(2.2) | 24(2.5) | 24(2.5) | -1(-0.1p) | -4.0 | 0(0.0p) | 0.0 |
| 경북 | 24(1.8) | 36(2.5) | 36(2.6) | 39(2.9) | 42(3.1) | 18(1.3p) | 75.0 | 3(0.2p) | 7.7 |
| 경남 | 33(2.3) | 35(2.3) | 31(2.1) | 39(2.7) | 37(2.5) | 4(0.2p) | 12.1 | -2(-0.2p) | -5.1 |
| 제주 | 5(1.8) | 5(1.7) | 5(1.7) | 6(2.1) | 6(2.1) | 1(0.3p) | 20.0 | 0(0.0p) | 0.0 |

()안은 실업률 및 증감률

사회 분위기상의 문제

업계 외적인 측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의 문제도 크다.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졸 이하의 실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학력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기회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 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에는 3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 채용 억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낮은 고용창출, 기업의 경력직 선호 및 상시구조조정 정책 등의 수요측면과 낮은 경쟁력의 대졸자의 급증, 대학 졸업장 받기 수준의 학벌 선호 현상, 3D 및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의 근로인식을 포함한 공급측면이 상호작용 하면서 양적 질적 부조를 형성, 청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해소 방안 강구

그렇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도 요구된다. OECD 국가들도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10% 이상이다. 이들 국가는 고용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은 1998년 1월부터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시행 이후 2년 동안 1만5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프랑스도 1998년부터 TRACE라는 청년실업 해결 프로그램으로 고용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하는 사람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도 1999년부터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JUM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활동 지원이 핵심이다.

위의 예처럼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하에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학교교육에서부터 직업훈련과 고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구축하며 업계와의 친밀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뒷받침 돼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인쇄업계와 인쇄 전공 졸업자간의 상호 구인, 구직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갑준 기자>